



(사) 세계평화여성연합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KOREA
UN NGO 포괄적합의지위기관

04308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19 청파빌딩 4층
Tel. 02-703-9321 www.wfwp.or.kr

DMZ, 과거 현재 미래를 잇다

DMZ PEACE ZONE

심포지엄

2021년 6월 2일(수)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주관



(사) 세계평화여성연합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KOREA
UN NGO 포괄적합의지위기관



유엔한국협회

United Nations Association
Republic of Korea

후원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UPF 서울·인천지구
Universal Peace Federation



프로그램

DMZ Peace Zone Symposium

시간	주요내용		
14:00~14:0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4:05~14:30	개회식	환영사	문훈숙 세계회장 (세계평화여성연합)
		인사말	이호진 회장 (유엔한국협회)
		축사	주진태 회장 (UPF 서울·인천지구)
주제: DMZ, 과거 현재 미래를 잇다		좌장: 이서향 부회장 (한국외교협회)	
14:30~15:40	DMZ의 과거와 현재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북한에서 보는 DMZ		엄현숙 연구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DMZ의 평화적 활용과 UN		박흥순 부회장 (유엔한국협회)
	종합 토론		
15:40~15:50	업무협약식 (세계평화여성연합-유엔한국협회)		
15:50~16:00	기념촬영 및 폐회		



주요 참석자



문훈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겸 한국회장

- 現 유니버설발레 단장
- 現 국제공연예술총회(ISPA)서울총회 자문위원
- 現 선학학원 부이사장
- 現 효정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이호진 유엔한국협회 회장

- 現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EPG 현인위원
- 前 KBS 객원해설위원
- 前 미국 브루킹스 연구서, Non-resident Senior Fellow
- 前 주 핀란드대사, 주 헝가리 대사, 주 유엔대사



주진태 천주평화연합 서울·인천지구 회장

- 現 세계일보 서울 지사장
- 現 사)자원봉사 애원 이사
- 現 사)생활정치아카데미 전국 텃밭포럼 공동대표



이서항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 前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 및 연구실장
- 前 주 몰바이 총영사
- 前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 미국 켄트주립대 정치학 박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現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겸임교수
- 前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 前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 저서: 맛있게 읽는 북한이야기 (2019)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 김정숙사범대학 혁명역사학부



박흥순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 現 선문대학교 명예교수, 세계유엔체제학회(ACUNS) 집행이사
- 前 외교부 자문위원, 유네스코집행위원
- 前 민주평통 상임위원
-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국제정치학 박사

DMZ Peace Zone Symposium

발제1 DMZ의 과거와 현재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목차

I. DMZ의 과거

II. DMZ의 현재

III. DMZ의 가치

IV. 독일의 교훈

V. DMZ 평화지대화 방향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VII. 고려사항

I. DMZ의 과거

□ DMZ 평화공원

- 2013. 박근혜 대통령 미 의회연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안
 - 국정과제 125 “작은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주요 추진계획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건설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포함
- 2013.8.15 광복절경축사, 북한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안
- 2014. 대통령 UN총회 연설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필요성 및 국제사회 협력 요청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DMZ World Eco-Peace Park)로 명칭 변경

I. DMZ의 과거

□ DMZ 평화공원

- 1992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DMZ 대규모 공원 조성 남북 양측에 제안
-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정부가 ‘DMZ의 평화적 이용’ 제안
- 2009년 환경부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실시
- 2010년 환경부·UN·IUCN 세계평화공원 조성 권고문 채택

I. DMZ의 과거

□ 북한 반응

10.4. 남북정상회담 ‘DMZ의 평화적 이용’, 시기상조를 이유로 거부

2013.5. 박근혜 대통령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DMZ생태세계평화공원 구상 제시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박 대통령 비난

2013.8. 김양건 부장, “개성공단 잘 되면 DMZ생태세계평화공원 잘 될 것” 언급

2014.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박대통령에 공개 질문장
서해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답변 요구

Ⅱ. DMZ의 현재

□ DMZ 비무장화

- 남북 군사분야합의서(2019.9.19)
- 남북은 9.19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JSA 비무장화 및 지뢰제거, GP 시범철거 착수
- DMZ 비무장화 등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현 상황에서도 진전이 가능
- 2019.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적대관계 해소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할 의지 명시

Ⅱ. DMZ의 현재

□ 북한 반응

- 2020.6.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2020.6. 북한 총참모부 DMZ관련 4대 군사행동 예고
 -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병력 진출,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감시초소(GP) 복원, ▲접경지역 대남전단 살포
- 2020.6. 4대 군사행동 이행 보류
 - 당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 개최, 보류결정

Ⅱ. DMZ의 현재

□ DMZ 국제평화지대화

- 문재인 대통령, 제 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통해 DMZ국제평화지대화 구상 발표(2019.9)
 -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개성-판문점 지역 평화협력지구 지정
 - DMZ에 유엔기구와 국제기구 유치
 - DMZ 지뢰 제거

Ⅲ. DMZ의 가치

□ 한반도와 동북아의 분단선

- 냉전기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
 -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간 대립과 갈등을 상징
 - 첨예한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의 현장
- DMZ는 한미일 vs 북중러 삼각대립구도의 전선으로 기능
- 한민족 생태계의 단절과 아울러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권간 소통의 단절을 상징

Ⅲ. DMZ의 가치

□ 한반도와 지구촌의 전쟁기념관

- DMZ는 살아있는 전쟁기념관으로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내재
 - 민족간 갈등으로서 한국전쟁의 기억의 공간
 - 국제전쟁으로서 한국전쟁의 기억의 공간
- DMZ내 무장 및 시설, 군사정전위와 중립국 감시위원회 등 다양한 기억의 소재를 포함

Ⅲ. DMZ의 가치

□ 한반도 및 세계평화의 상징적 잠재성 내재

- DMZ 평화지대화가 완료될 경우 한반도 평화상태의 달성과 아울러 세계적인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전환이 가능
- 한국적 평화모델인 동시에 세계적인 평화의 아이콘 및 랜드마크로서의 잠재성을 내재

Ⅲ. DMZ의 가치

□ 성찰의 장소

- 동족상잔의 전쟁과 이념의 극단적 대립의 기억과 현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
-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체제는 현재진행형이며, 한반도에는 냉전구조의 관성이 작동
- 전쟁과 분단, 갈등과 폭력적 대립에 대한 성찰의 장소로서 성격을 내재

Ⅲ. DMZ의 가치

□ 한반도 및 유라시아 생태의 거점

- DMZ는 전쟁의 상처를 자연 스스로 치유한 고유한 생태적 의미를 내재
- DMZ는 한반도의 횡적 생태축인 동시에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생태축
- DMZ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생태계를 연결하는 동북아 생태계의 거점

Ⅲ. DMZ의 가치

□ 다크 투어리즘

- DMZ는 민족전쟁이자 국제전쟁인 한국전쟁의 과거와 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내재
- DMZ 외국관광객의 90%가 한국의 관광지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곳으로 평가, 한국 방문 외국관광객 60%내외 DMZ 인지
-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의 진전, DMZ 접근성 개선 등이 수반될 경우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가능성

Ⅲ. DMZ의 가치

□ 세계인의 유산

- DMZ는 이미 전세계인의 기억속에 각인된 국제적 장소라는 점에서 남북한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내재
- IUCN, 넬슨 만델라 대통령 등 이미 DMZ의 평화적 이용 또는 세계평화공원 등의 구상을 제시
-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생태를 애호하는 세계인의 관점에서 조망이 필요

IV. 독일의 교훈

□ 동서독의 DMZ

- 분단 동서독간에도 DMZ 존재
 - 1393km, 폭 50-200m, 동독주민의 탈출 감시가 주목적
- 고속도로 4개 등 도로 10개, 철도 9개 노선이 분단 동서독을 연결
- 서독의 경우 분단체제에서도 DMZ 인근까지 평화적 이용 가능



IV. 독일의 교훈

□ 독일 통일 후 DMZ 활용

- 급작스러운 통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DMZ 활용 문제에 직면
 - 난개발 및 원소유주 문제 등 부각, 개발과 보존 문제
- 환경단체가 보존 주창, 정부가 수용, 정부 지원 및 모금 등으로 재원 마련
 - 생태보전 및 친환경 이용 농업 등 혼용
- 엘베강 생물권보존지역, 하르츠 국립공원, 린 생물권 보존지역 등 150여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로 기능
- 1250km 그뤼네스 반트로 보호, 감시탑 및 철조망 등 일부 시설을 기억의 공간 및 평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IV. 독일의 교훈

□ 시사점

- **종합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체계적인 활용에 한계**
 - 평화 및 생태적 이용의 체계화에 한계
- **DMZ 군사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 전쟁 기억을 무계획적으로 철거**
- **DMZ 전체를 벨트화하는데 실패, 중간에 단절 구간 형성**
 - 생태벨트 보다는 생태 네트워크 또는 생태 섬으로 기능
- **한반도 DMZ의 미래에 대한 사전적, 체계적 대비 필요**

V. DMZ 평화지대화 방향

- **동북아 및 유라시아 생태 네트워크의 거점화**
 - 남북한의 생태축을 연결하고, 동북아 유라시아의 생태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발전
- **DMZ 전역의 평화·생태 벨트 구축**
 - 점▶선▶면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DMZ 전역을 단일 평화·생태벨트로 연결
 - DMZ 전역의 보존을 기본원칙으로 철도 도로 등 필요시설의 고가화 및 지하화로 영향을 최소화
 - 대규모 시설 및 건축물의 경우 DMZ 인접지역 활용

V. DMZ 평화지대화 방향

- **한국적 평화모델 창출**
 - 남북한간 항구적 평화의 정착 및 민족화해의 공간으로 승화
- **세계적인 평화의 랜드마크화**
 - 전쟁의 기억과 평화에 대한 성찰을 상징하는 세계 평화의 아이콘으로 승화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제안: 문재인 대통령 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19.9.24.)
-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함.**
-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제안함.**
-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을 제안함.**
 - 개성공단 재개 시 다국적기업 공단화 청와대 경제계 오찬간담회(2019.10.4.)
-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제안함.**
- **국제사회 보장을 통한 DMZ 평화지대화로 북한 안전보장,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 DMZ를 관통하는 한반도 동북아 경험 가속화 가능**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개념

- DMZ와 북측 개성을 포함하는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및 국제협력지대를 의미함.
- DMZ를 중심으로 인근 접경지역을 포함함.
 - 넓은 의미에서 남북 접경지역까지 공간적 범위의 확대가 가능
- DMZ와 접경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함.
 - 남북, 북미관계를 넘어 UN차원의 보장을 통해 북한의 체제보장과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
- 국제협력을 통해 북측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공동번영을 달성함.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국제평화지대화

- 남북 공동 가칭 '한반도 접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함.
 - 동서독의 경우도 분단기간 접경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에 대해 협의
 - 전염병, 수자원 관리 등 당면 접경지역 현안 협의
 - DMZ의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 유엔총회와 유엔안보리의 결의 등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합의를 도출함.
 -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도화
- 유엔 산하에 가칭 'DMZ 평화 특별위원회' 같은 실무기구를 설치해 DMZ의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감시함.
 - DMZ 유엔사령부 관리기능을 평화적인 유엔의 기구로 이관
 - DMZ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회복
 - 유엔사령부와 같이 DMZ 주권 제약이 아닌 평화의 유지와 관리에 국한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판문점-개성 평화지대화

-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을 본격화함.
 - '남한 자본·기술 + 북한의 자원·노동력'의 단순 등식을 넘어 AI 및 4차 산업시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남북 산업단지로 개발
 - 한반도 평화경제의 거점화
- 국제공단화를 도모함.
 - 미국, 중국, EU 등 세계 투자자본 및 다국적 대기업 유치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세계평화협력지구화

- **평화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유지함.**
 - 가칭 '한반도 평화센터' 또는 '세계 평화연구원'을 설치, 남북협력, 평화연구 및 활동의 거점으로 육성
 - 세계 평화대학 및 한반도 평화대학 등 평화교육 시설 유치 운영
 - 세계 청소년 평화캠프, 평화박물관 등을 조성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남북협력체제를 형성함.**
 - 가칭 'DMZ 유네스코 등재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 유네스코 등재 이후 남북 공동관리기구로 발전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조사 사업을 사전적으로 실시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국제기구 유치

- **UN 서울사무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CBD(UN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기구 등, DMZ 인근 유치**
 - DMZ내 인공적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전체를 벨트 및 하나의 단일 공간으로 인식하여 평화·생태 공원화
 - DMZ내 시설 설치시 생태 훼손 및 DMZ 브랜드가치 저하 우려
 - 필요시설의 경우 DMZ 인접 남북 지역을 활용
- **한국 주도 평화·생태 관련 국제기구 창설, DMZ 인근 유치 방안을 모색함.**
 - 가칭 'WPBO'(World Peace & Biodiversity Organization) 창설 고려
 - 분쟁 갈등 해결, 평화문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평화 & 생태 관련 연구와 활동의 세계적 거점화 도모

VI.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 추진방안: 지뢰제거

- **DMZ 전체의 지뢰제거에 기술적 한계가 있음.**
 - DMZ 지뢰 매설 지도의 제약 및 장기간 방치로 인한 자연적 분산 등
 -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생활지역 지뢰 매설로 제거 시급성 내재
 - 한반도 DMZ 지뢰 대부분 무인지대 및 생태 우수지역에 매설
 - DMZ 전체의 지뢰 제거 시 자연 및 생태계 영향 우려 상존
- **지뢰문제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 필요지역을 우선으로 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해 제거함.**

Ⅶ. 고려사항

- **DMZ 보존 및 활용 설계도 작성**
 -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지대화를 큰 틀의 DMZ 보존 및 활용 설계도내에서 진행
- **가칭 'DMZ 특별위원회' 설치**
 - 평화, 생태, 예술, 체육, 건축, 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참여하는 종합기획단 구성
 - 국무총리실, 통일부 등 설치 고려
 - 필요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 검토

Ⅶ. 고려사항

- **참여형 축제개념 적용**
 - DMZ의 장소적 관점을 지양 공간개념을 적용
 - 비무장화 과정을 평화생태 문화의 '축제'로 승화
 - 국민 및 세계인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추진
- **분단비용의 균등화 개념 적용**
 - 분단고비용을 감당한 접경지역에 대해 적절한 고려 필요
 - 분단비용 균등화개념을 적용, 접경지역 저발전 해소방안 병행

발제2 북한에서 보는 DMZ

엄현숙 연구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들어가며:
몇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fromz001&logNo=221362501555&isFromSearch=true>



[https://de.wikipedia.org/wiki/Land_\(Deutschland\)](https://de.wikipedia.org/wiki/Land_(Deutschland))



국경의 의미

-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지리적, 정치적 구분선
-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립이나 협력, 그로 인해 새롭게 구축되는 국경 맥락
- 국경을 하나의 의미체계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공간

국경에 대한 시각 변화

기능적 측면에서 상징적 측면으로 그 초점이 이동

- 주권에 대한 정치적 표식, 국가 중심으로 이해, 오직 국경만이 나와 타자를 가르는 경계라고 인식하는 공정관념을 '영토의 덫'으로 비판
- 사회적 제도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동과 담론을 통해 구성하는 것, 이는 다시 사회와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침

이제 국경은 대치와 충돌의 공간에서 문화와 상징의 공간



금수강산의 허리를 끊어 놓은, 민족 분단의 상징

콘크리트 '장벽'

2018.7.22. 연재) 서재철의 DMZ 이야기 (2021.5.25)

경계는 분리선이자

접촉의 선

- ◆ 누가 주도 하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국경 간 왕래가 지속
- ◆ 하지만 구분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경우 교류는 일방적으로 중단, 협력 창구는 단절

충돌의 부산물로 빚어진 구분선,

따라서 국경 협력을 추진하는 문제는 당위적 문제로

국가중심적 관점이 재생산

분석 대상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작
- 일간지('로동신문')
- 북한식 용어 체계를 그대로 인용

한국전쟁의 트라우마

대전차 방어에 대한 집착

각종 인공구조물 설치의 결정판

파주 ~ 연천 ~ 철원 개활 지대 **23km** 구축

GOP 철책선 전체 길이 **248km**

대전차 장애물로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없음

비무장지대 GOP

철책선에 만들어진 장벽

‘로동신문’ 보도 빈도

1979-2016

Year	Frequency (approx.)
1980	10
1985	40
1990	75
1995	25
2000	15
2005	10
2010	12

비무장지대 안에 만들어져 정전협정 위반

이에 북한은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

김일성은 **1990년** 이 장벽을 ‘분단의 원흉’으로 지목

김정일에 의해 **1986년** 비무장지대 내부에

4선의 고압선 설치

비무장지대 GOP

철책선에 만들어진 장벽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판문점 지구를 참관

남조선괴뢰도당의 철근공그리트장벽구축행위는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용서못할 행위

세계민청기관잡지가 폭로규탄

1999. 11. 22. 5면

김일성 | 1972.5.26.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인공적으로 생긴 장벽**으로 하여 적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 친척들과 오래동안 갈라져 살면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신거래도 못하며 생사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 사태를 빚어내는 **인공적인 장벽**은 하루빨리 없애고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합니다(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김일성 | 1990.8.18.

- 지난해에 (중략) 임수경학생은 평양으로 올 때에는 **분단의 장벽** 때문에 멀리 에돌아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자기 조직의 결정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판문점을 거쳐 갔습니다.

김일성 | 1979.5.5

요즘 군사분계선 일대에 아래쪽이 10미터, 윗쪽이 3미터나 되는 **철근 콘크리트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무엇때문에 그러한 장벽을 쌓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나라의 **영구 분열**을 위하여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일본참관단과 한 담화).

김일성 | 1991.5.15.

- 군사분계선에 분렬의 장벽인 콘크리트장벽을 쌓은 것도 남조선당국자들
- 세계 여러 나라 전직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정치인들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놓은 콘크리트장벽을 가 보았고,
- 남조선당국자들이 콘크리트장벽을 **반땅크 차단물**이라고 거짓말 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은 없다.

김정일 | 1972.7.14.

- 3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조국의 분열은
- 분열주의자들의
- 통일과 분열
- 나라의 분열로 말미암아
- 현재의 분열상태를
- 남북으로 분열되어

【5】

로 룡 신 물

1990년 1월 5일 (금요일)

콘크리트장벽을 지체없이 허물어버려야 한다

[illegible]

미래와 남조선평화도당이 나라와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지 군사통치선남쪽에 구축한 최근공그리르장벽의 일부

김정일 | 1997.84.

- 민족의 분단
- 통일과 분렬
- 나라가 분렬
- 안팎의 분렬주의 세력
- 민족분렬책동
-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

‘로동신문’ | 2006.12.29.

콘크리트 장벽은 민족분렬과 북남대결의 상징이며 세
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이러한 장벽을 그대
로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

‘로동신문’ | 2006.12.29.

- 1977~1979년까지
- 80만톤의 시멘트, 20만톤의 철근
- 240km 구간에 높이 5~8m,
- 밑 너비 10-19m,
- 위의 너비 3-7m
- 땅크 차단물이면 2m면 충분
- 따라서 북을 공격하는데 유리

경로의 이탈? | 2020.6.1.

-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애국애족의 선의를 베풀어
- 군사합의서 채택으로 북남대결의 동토대 허물어

장벽의 특징

- 거대한 분렬장벽이면서도 남쪽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룬데다가 흙을 덮고 잔디를 씌워 북침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로동신문’ 2006.12.29).
- 북쪽면은 수직이고, 남쪽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오히려 북침공격작전에 편리하게 구축된 것(‘로동신문’ 2009.12.30),



1960년대 고착화된 혁명의식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경로 의존적이지 경로 보완적



홉스봄의 표현을 빌리자면
Eric Hobsbawm | 2004

- 수요나 공급의 측면에서 충분히 거대하고 급속한 변화들이 있을 때
- '만들어진' 전통의 특수성은 대체로 과거와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내세우려 든다는 것
- 새로운 유형의 만들어진 전통들을 구성하는 데 낡은 재료들을 이용

군사적 보호 기능과
이데올로기 단절 기능

-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구상 비난
- 민족 비극 돈벌이 하겠다는 수전노의 관점
- 정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2020.3.20일자에 거론
북한의 당 기관지 '로동신문'에는 언급이 없음

군사적 보호 기능과
이데올로기 단절 기능

김정은에 의한 국가 권력 장악이 김일성-김정일
주의의 모든 업적을 모두 보존/확장 시키는 것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로의 의존과 보완

관료주의의 완고함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사회의 군사화
스스로 요새화

- 완전 고용의 목표는 포기
- 국민 모두에 제공하려는 복지의 열망도 손상
- 훌륭한 생활도 자유로운 생존도 마련해 주지 못함
- 대다수에 고통을 안겨주며 생산자원을 파괴하는 식
- 경제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실패
- 오랫동안 현실에 저항하며 버텨오는 중

마무리:
국경 협력과 안보

- 정치적 주체들 사이의 갈등
- 국경 협력이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한다면, 안보에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갈등을 촉진한다면 안보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
 -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가 문제

발제3
DMZ의 평화적 활용과 UN

박흥순 부회장
(유엔한국협회)

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UN): DMZ 국제기구 유치 전략과 실행방안 (안)

I. 국제기구 유치 전략모색의 취지

-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추진,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
- 기본정책, 추진체제, 방향 및 전략 수립, 추진의 기본계획 제시
- 유치대상 및 기준, 우선순위, 방안 등의 체계적 접근
- 유치전략의 실행 방안 도출

II. DMZ의 특성, 유용성과 활용 타당성

- DMZ(비무장지대)의 역사성 (한반도분단 38선, 6.25전쟁, 긴장과 대결의 장)
- 현재로서 남북한 화해, 남북협력 및 평화적 통일에 건설적인 채널과 접근 차원
- 활용가능성 (평화생태공원, 국제평화지대, 국제기구 소재지, 다목적 복합지구)
- 한국의 국력,(경제력, 정치외교력, 문화예술력)을 반영, 혹은 강화하는 ‘소프트파워’
- 상승하는 아시아. 태평양, 동아시아 지역의 상징성, 대표성, 균형성 반영
- 한국의 미래, 동아시아를 위한 효과 등 기여가능성
- 인천, 서울 등 주요도시와 직결된 국제도시로서의 근접성

III. DMZ의 평화적 이용 논의의 경과

1. DMZ 활용 방안 제안

1) 국제기구 유치제안- DMZ 유엔 제5사무국 유치안

- 국내에서 1999년대 말 이래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한 협력, 관광자원개발, 민통선 보존 등 에 관한 다양한 방안제기
- 민간단체, 학계,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DMZ 국제기구 유치 아이디어 부상

- 2014년 이래 시민단체 (주로 세계평화여성연합) 주도로 유엔기구, 특히 유엔 “제5사무국” 유치운동 명명, 전개로 공론화
 - : 기존 소위, 제 1,뉴욕 유엔본부, 제2, 제네바, 제3,비엔나, 제4,나이로비 사례 벤치마킹
 - : DMZ 평화공원 지대화, 가칭 ‘유엔세계평화대학’ 등 설립안, 유엔본부 혹은 아시아 지부 이전 제안 등으로 구체화
 - : 국.내외 세미나, 홍보, 서명 캠페인 등 진행
-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 인접지역 지자체가 유치참여 관심 표명
 - : 북한지역, 인천 송도 지구등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 기대

2) DMZ 평화공원 혹은 자연생태.관광지구 조성구상

- 70여년간 분단공간의 생태적, 물리적 특이성을 활용하는 평화공원 혹은 생태공원 건설의 방안 논의 제안 (DMZ의 남북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제 포함)
-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제안 (국가간 분쟁지역의 갈등해소나 우호의 상징, 혹은 생태보호나 환경문제 해결 등)
 - :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워튼-글레이시어 (Warton -Glacier) 세계평화공원
 - : 남아공 등 아프리카 3개국 간의 대 림포 (Great Limpopo)공원
 - : 독일 ‘그뤼네스 반트’ (Grünes Band) 구 동,서독의 접경지역의 보전지역 및 국립공원 등
- 2009년 이래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등 역대 정부가 세계적 생태· 평화벨트 조성 구상, 세계평화공원 조성구상 등 추진
- 2017년 이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일환으로 환서해 및 환동해 경제벨트와 함께 DMZ 경제벨트 (환경. 관광벨트)로서, DMZ와 접경지역을 평화변영지구로 구축하는 방안 제시

2. 평가 및 과제

- 국제기구 유치방안과 생태공원 조성안의 조화 혹은 균형
- 신규 국제기구 및 사무국 유치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전략
- 기존 외국 유엔기구단지 (cluster)의 조성 역사 및 정책, 전략 등
- 국제기구 유치 및 사무국 설치에 대한 주변국 및 유엔회원국 지지 노력
- 막대한 경비, 국민적 지지에 바탕한 정부의 의지 및 전략
- 현재로서 최대 관건인 북한의 설득과 협조를 위한 전략과 변수

IV. 국제기구 유치 추진 방향 및 고려 사항

- 기존 국제기구 도시(집적지)와 차별화된 특성 혹은 틈새 분야 기구
- 새로운 발상과 미래지향형 국제기구 (국제기구, MICE, 복합기능 도시, 공연예술, 문화, 관광자원)
-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평화애호국가 역할을 촉진하는 분야기구

- 한국의 중견 선진국, 비교경쟁력, 미래지향적 국제사회 역할에 부합하는 분야 기구 중점
- 남북화해, 발전, 통일촉진, 통일 후 활용 가능한 기구소재지로 추진
- 세계 최고수준의 IT 등 활용 하이브리드 (최적형) 국제기구 (ubiquitous city)
- 유엔과의 특별한 인연 등 국민적 열망 및 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기구 분야
- “반기문 UNS/G 효과”를 활용하는 전략 구상
-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허브로서의 구심점에 기여
- 동경, 북경, 방콕, 싱가포르 등과 연계, 주변국에도 파급효과가 큰 분야

V. 추진전략 (1): 유치기준, 대상 분야 및 기구

1. 유치, 설립 기준

- 한반도의 정체성, 비교우위, 발전전략과 부합하는 기구 우선 유치
- 한국의 국제적 기여 가능성이 큰 분야
- 유치가능성, 이전 가능성이 큰 국제기구 공략
- 인원, 예산, 규모 등이 크고, 세계적 지명도가 성장 가능성이 큰 국제기구 우선
- 상호보완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연관 기구
- 국내 및 국제 NGO중 국제적 위상 고려 및 관련분야 기구 유치
- 주요한 국내기관 이전으로 국제기구와 시너지 효과
- 기존 국제기구의 보완적 역할 분야(교육 훈련 등)

2. 유치 대상, 설립 분야

1) 평화, 개발 분야

- 세계평화.안보 관련
 - :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 Conflict Resolutions & Peacebuilding,
 - : 대인지뢰, 재래식소형경량 무기 규제, 무기무역 관련기구
- 개발 및 개발협력 관련
 - : 경제개발, 여성, 불평 등 사회개발, 교육 훈련 등 인간개발 등 분야,
 - : IT 등 정보.기술 분야 포함

2) 교육.훈련 분야

- 평화교육 관련 대학원 혹은 훈련연수원, 세계시민교육 훈련원
- PKO 등 국제분쟁 대응 유엔 Peace Operations 교육훈련원 (“반기문 센타”) 등
- 유엔 IT교육센타 (유엔공무원 교육) (대학, 삼성, SK등 기업과 연계)

3) 보건.환경 (BT)분야

- 코로나 (Corvid-19) 등 보건질병 통제 등 보건안보 (Health Security) 연구, 정책
- 국제질병대응 훈련센타 (개도국 의료인력 대상)

4) 공연예술, 문화등 분야

- 세계문화예술 교류기구
 - : 문화, 예술의 교류활성화, 인적교류, 교육전수 등의 세계시민성 확산 정책 및 실행
- 청년세대 문화,예술 교류, 참여 활성화 (K-Pop/ Culture 등의 경험활용)

3. 유치 대상 기구 및 단체 (예시)

1) 기존 국내소재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

- 국내에서 활동하나 근무 여건, 재정이 취약한 국제기구 지부 등
 - : UNEP-Korea, UNDP-Korea, IOM(국제이주기구)-Korea,
 - UNHCR (유엔난민기구)-Korea, UNHCHR (유엔인권기구)-Korea 등

2) 국내소재 기관 및 기구

- 전 세계 및 아시아 개도국 대상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관 및 기구
 - : KOICA (국제협력단) 각종 훈련프로그램 (초빙, 혹은 파견), UNESCO 아.태 훈련프로그램 등

3) 타국 소재 기존 유엔 및 국제기구 이전유치

- 대인지뢰금지기구 (제네바 소재) 이전
- 국제기구 특화정책에 부합하는 성격의 기구유치
 - : (예) 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 방콕) (ITU/ UNESCAP 지원)
- 타국에 있으나 재정등 열악한 여건에 있는 국제기구 식별, 유치
 - : 방콕, 마닐라, 네팔 등 소재 국제기구

4) 신설 예정 혹은 가능한 유엔 및 국제기구 혹은 아시아지부 유치

- UN Peacebuilding Commission 등 Peacebuilding Architecture 유치
- 유엔 Global Compact Network

5) 새로운 유엔 및 국제기구의 신설 제안 및 유치

- 반기문 PKO 훈련센타 (국방대 산하 PKO센타, 확대)
- WHO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 (본 소재 유럽센터의 성격),
- 국제 철도기구 동아시아 지부 등
- UN Digital Library 구축

6) 국제NGO및 학회 유치

- 국제적 활동 내용과 공신력있는 국내 및 국제 NGO, 학술단체, 전문단체 등

7) 기타 필요에 따라 신설 (창설) 주도 (주요국가 및 단체와 연대)

VI. 유치 전략 (2) : 여건조성, 정책 및 전략 수립

1. 기본 여건 조성

1) 시설 확보 및 제공

- 여건에 따라 DMZ 내, 남북.한 인근지역을 포함하는 적정 규모의 지역 선정
(예: 인천송도, 고양, 파주 및 북한의 개성 등의 인프라 및 시설과 연계된 지역 및 도시 구축)
- 최적화된 현대식 UN센터빌딩과 최첨단 회의장 등 각종 회의시설, 편의 시설을 건설
(IT 등 활용, 하이브리드 회의기자재 등)
- 뉴욕, 제네바, 비엔나, 본 등 경쟁 시설을 벤치마킹 (수요자 중심, 최첨단 기능성시설로 완공)
- 세계의 유엔건물 중 가장 특징있는 건물 (landmark)로 특성화 (건축학적으로 특징있고, 기능적으로 편리하며, 최첨단의 시설물 등)
- 30-50년간 혹은 영구 시설 무료제공 혹은 차관제공 등 유리한 유치조건 설정 및 명문화
- 독립, 자족한 타운으로서 공연예술 등 일상생활이 어우러지는 편의 공간시설 배치

2) 부대 주거, 지역 여건 확보

- 국제기구직원의 주된 관심사로서 주거, 교육환경, 근무환경, 인적서비스인프라 등의 4 요소를 충족하는 여건 구축을 병행
- 호텔 등 숙박시설 확보 (다양한 가격대의 숙박 및 회의시설 다량확보), 고급병원등 확보
- 국제컨벤션센터 건설 (유엔회의장과 함께 국제회의 활용) 및 전담 MICE 인력
- 서울 및 인천, 인천공항, 시내중심지와 연계된 각종 Express 혹은 Non-stop 교통망 확보
- 국제기구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혹은 보조 인력 교육, 양성, 충원 체제 및 방안
- 국제회의 등 유엔 혹은 민간 차원의 국제적 행사, 부대 프로그램 활용전략 수립

2. 유치 정책, 체제구축 및 추진 전략

1) 유치 전담 기구 및 활동

- 범국민 및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유치위원회 신설 및 종합계획 구축 (국회 및 정부) 제안
: 산하에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실무기구 및 부서 구성
: 외교부 안력 등 전담 부서 구성 및 인력의 배치

- 민간단체 차원의 کم소시움 등 민간역량 결집으로 민간외교 기반구축
- 국제기구 유치 추진 위한 One-stop service 실무체제 구축
- 유엔 및 국제기구, NGO등 관련 정보수집 및 database화, 모니터링

2) 유치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 전문화

- 국가전략으로서의 국제기구 유치 (Master Plan) 정책 (비전, 목표, 정책, 전략 등)
: 기본 정책 및 전략의 추진단계별, 일정별 세부계획도표 작성
: 소요 지원예산 및 재정 규모, 자원 확보, 유치의 효과 예상 분석등
: 유치결정의 전문성, 효율성, 타당성 확보위한 심사.평가 기준, 과정, 결정과정표준화 개발
: 외교부 등 정부 부서간, 관련기관, 지방정부와의 협의 혹은 지원 절차 수립 및 표준화

3) 국제기구 접촉 및 정보획득 채널 확보

- 국제기구 정보 database화 지속적 확대 (국제기구 자체, 고위직 주요인사 및 담당관 등)
- 유치대상 기관의 연차총회, 이사회 등의 한국 개최 초빙
-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 (뉴욕, 제네바, 비엔나등과 경쟁대상국 방콕, 마닐라, 본 등) 및 대상기구 방문, 현지 면담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의 자문 등 네트워크 활용
- 정부차원의 유치관련 최신 국제기구정보 및 동태의 수집 및 자료화

4) 국내외 민.관.산.학 협력체제 강화

- 주요 NGO의 역량 및 인프라 결집의 네트워크 구축
- 국내 및 국제 관련학계와 인프라 구축 및 긴밀한 협력 (학술회의, 세미나, 유치관련 정보교류)
- 삼성, LG등 주요산업계와 연계, 유치추진 및 국제회의 공동주최, 후원 등 협력
- 현지방문, 실사, 정보획득에 관련인사 공동참여로 전문성 및 국제적 네트워크 활용

VIII. 대외 활동 및 홍보 등 유치 전략의 실행

1. 정부차원의 대외활동 강화

- 대통령 등과 중앙부처장 등 고위인사, 추진위원회 인사 등이 국제기구유치 관심 및 의지 적극 표명
- 주요 정상회의, 각료회의, 국제기구회의 등 기회 활용, 의지와 구상 반영 (유엔총회 및 기구회의)
- 주요 국제도시, 국제 저명인사 등 국제적 네트워크 확산 및 활용
- 유엔 관련 주요 국제회의, 국제기구회의 참석, 유엔기관 등 주요 국제기구 방문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관련 인사채널 활용

2. 민간 혹은 민관 차원의 활동 강화

- 일반시민, 시민단체, NGO등의 참여 및 인지도 제고 위한 브리핑, 공청회, 전문가회의, 매스콤 홍보 등 강화 (공공외교 및 민간외교)
- 주로 각국 정치.외교 지도자, 다국적 CEO, 국제기구 관료 등 대상 국제 홍보 강화
- 홍보 브로셔 및 CD-롬 (영어, 불어등) 작성, 발간, 배포
- 주요 국.내외 저명인사의 명성도, 인지도 활용 홍보
- 국내 및 세계시민 대상 다양한 매체 활용의 홍보 캠페인 전략 등

3. 유엔활동 및 국제기구 관련 활동 강화

- 국내 및 국제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관료 등이 참여하는 유치관련 혹은 국제기구 관련 주제 세미나, 포럼 및 자료축적
- 각종 국제회의의 기회활용, DMZ 방문
- 대학생 및 청소년 중심 각종 기획행사, 경연대회 개최 (국내 및 아시아, 세계 규모)
- 주한 외교사절 초청 설명회, 간담회 등 협조 요청
- 우호적인 국가(참전 16개국 포함) 등에 대한 접촉 및 지지 요청 등

IV. 결론

- 단기적 일과성이 아닌 중,장기 발전, 한국의 국가적 및 세계적 차원의 기여 제고차원에서 추진
- 전반적 종합정책 및 추진계획수립 및 단계별 추진이행, 평가 점검을 위한 체제 및 의사결정절차 구축
- 지속적인 자료보완, 정책 및 전략 및 실천 방안의 이행을 위한 노력지속 (끝)



